

“

왜:

성녀 클레오파트라

”

글_서희정 마리아 | 그림_홍미현 세레나



그럴 리가 없다. 아니다.

당연히 아니지. 우리 아들이 죽었다니, 말도 안 된다. 하 나밖에 없는 내 아들, 요한이 죽었다니. 아무리 하루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라지만 이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건가? 우리 아들은 군인이다. 그렇게 튼튼하고 젊은 애가 이 어미 보다 먼저 세상을 등질 리가 있나.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아프 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아니지. 그렇지 않나요, 하느님? 하느님의 성전이 완성된 오늘,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요.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, 이렇게 벅차고 기쁜 날에, 세상이 무너질 리 없잖아요. 이 대성당을 짓기 위해 제가 얼마나 애썼는데요. 하느님도 아시잖아요, 그렇지요? 하느님께서 저한테 그러실 리가 없죠. 그럼요. 제가 이 성당 왜 지었는 데요. 바루스 형제님을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. 하느님을 위 해 목숨 바쳐 순교하신 바루스 형제님이요. 그 유해 누가 거 뒀게요. 저잖아요. 아무 데나 뿌려질까 봐, 아무 손에나 넘 겨질까 봐 제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지켜냈게요. 털로 만 든 가마니에 싸서 몰래 이곳 아드라하까지 갖고 왔던 거 기 억하시죠? 그때 그 마음고생 몸 고생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 이 벌렁벌렁 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려요. 그때, 하느님께서 지켜주신 거잖아요. 하느님 아들, 바루스 형제님이 유해라 도 제대로 묻히라고 도와주신 거잖아요. 그런데 왜 제 아들

은 안 지켜주세요, 왜? 왜 제 아들은 버리세요?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하느님만 믿고 따르며 살았잖아요. 그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? 저 이만하면 하느님 예 뿐 딸로 잘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왜? 왜 저한테 이런 고통 을 주시는 거예요? 살려 주세요. 다시 살려내요. 저한테 다 시 돌려주세요.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. 다시 하느님 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...

거룩한 순교자 바루스 형제님! 저 좀 도와주세요. 나 몰라 라 하시는 거 아니죠? 그러시면 안 되죠. 형제님을 위한 저 의 희생을 봐서라도 도와주셔야 해요. 빨리 하느님께 말 좀 해주세요. 제 아들 살려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, 제발요... 제발...

하느님! 꿈에 우리 아들, 요한을 보았어요. 바루스 형제님 과 함께 있더라고요. 둘 다 정말 눈부셨어요. 머리에 쓴 관 도 얼마나 환하게 빛나던지! 바루스 형제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대요. 하느님이 제 꿈에 두 사람을 보내 주 신 거죠? 이제 왜냐고 묻지 않을게요. 제게 일어난 좋은 일 도 왜인지 모르니까요.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우리 아들... 고맙습니다.

다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



“생명의 복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축합니다”

매일의 삶 속에 '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'을 채워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 미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. 이러한 '사랑에 찬 행동'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의 높은 단계 곧 '십자가 의 신비'에 참여하는 것이며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는 영웅적인 행동입니다.(생명의 복음 86항 참조)

글_생명위원회